

구운몽의 구원관

김영수 (동북고 교사)

다음의 기학연 문학연구모임에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문학작품들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검증 작업을 한 가운데서 발췌한 글입니다.

줄거리 및 사상적 배경

성진이라는 불제자가 팔선녀를 보고 여성에 대한 연정을 느껴 꿈속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양씨 문중의 남자로 태어나니 그가 바로 양소유이다. 글과 재주가 뛰어난 그는 곧 과거에 급제하여 왕의 총애를 받고, 전쟁에 나아가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운다. 그러면서 처음에 만났던 인간 세상에 내려온 팔선녀들을 모두 자기의 배필로 삼아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잠을 깨고 만다.

밖에는 달이 질 무렵, 그의 손에는 백팔염주가 쥐어 있고 머리를 만져 보니 중이지 대제상이 아니었다. 잠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워 하다가 주변을 돌아보니 자기가 성진으로 있을 때에 앉아 있던 연화 도장에 있음을 발견한다. 그는 인간 세상의 부귀공명은 모두 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팔선녀와 함께 극락 세계로 들어간다.

<구운몽>은 봉건 질서가 해체되기 시작하는 17세기에 사대부에 속한 작가 김만중이 쓴 작품으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문제 제기한 소설이다. 그 배경은 중국 당나라이며, 현실->꿈->현실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꿈을 꾸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 구조(幻夢構造)이면서 일종의 액자 구성(성진의 이야기 부분이 액자, 즉 외부 이야기이고, 양소유의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구운몽은 유불선 3교의 사상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형상화되어 있지만 그 주제는 다분히 불교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교 사회인 조선 사회의 유교적 사상성을 작품에 반영시키려는 의도는 양소유의 삶을 통해 현실주의와 입신양명, 부귀영달 등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욕망 성취로 나타나고, 유교의 현실주의가 드러내는 모순이나 한계는, 지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헛된 것이라는 불교적 숙명론으로 마무리한 것을 보면 작가의 철학적 고민이 어떠했는가를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의 구성 단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발단: 성진이 팔선녀와 수작하다가 풍도로 쫓겨남

전개: 성진이 인간계에 환생하여 양소유로 태어남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팔선녀의 후신들을 만남

대승상 위국공이 됨 6남 2녀를 낳음

절정: 인생무상을 느낌, 꿈을 깨, 연화도장으로 돌아감

결말: 보살 대도를 얻고 팔선녀와 함께 극락 세계로 들어감

문학사적 의의 및 꿈을 통한 현실 문제의 해결

<구운몽>은 ‘꿈의 구조’를 완벽하게 소설적 구조로 정착시킨 <옥루몽> <옥련몽> 등의 몽자류 소설의 아류작을 낳게한 효시 작품이며 전형적인 조선 중기 양반 사회의 생활상을 나타낸 양반 소설의 대표적인 것이다.

몽자류 혹은 몽유록 소설로 지칭되는 서사 양식은 현실적 제약을 받던 내용이나 당대의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던 욕망을 현실 세계와 꿈 속 세계의 대립적 구조를 통해 극복, 추구하려는

경향에서 생겨났다. 특히 몽유록류는 현실 세계의 불만이나 부조리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표출될수록 창작 여건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국가 수난기나 민족적 울분, 사회 혼란기에 지식층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한 문학 형식으로 욕구 불만의 분출구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개인의 창작이 아닌 민중이 공유한 보편적 태도 위에서 형성된 장르이다. 이와 같이 꿈의 형식은 우리나라 서사 문학에서 그 연원이 오래 됐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구운몽>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장르를 왜 읽어야 하며, 그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반문해 보자.

하나의 문학 작품은 시대를 반영한 작가의 태도이므로, 고전 소설의 사상성은 하나로 어울어져 우리 민족의 의식 세계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당대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한 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쓰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치있는 의미 체계를 발견하는 안목을 얻게 된다. 또한 그러한 작품의 의미 체계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아갈 문학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려 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세계에 일어나는 주요한 지적 움직임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불교 사상의 유일한 가치성의 문제

<구운몽>은 불교적 숙명론에 귀착해 있다.

인간 삶의 기쁨과 고통은 모두가 한순간의 꿈과 같고, 숙명적이므로 조금도 슬퍼하거나 기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제시되고 그 선택의 여지는 독자에게 남겨 놓아야 할 상상의 산물인 소설 작품에서조차 불교적 인생관의 가치를 최고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교적 숙명론 내지는 도교적 사상성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세계의 이원적 설정에 있다. 고전 소설에서 나타나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대립적 설정을 말한다. 천상계는 복락의 땅이며 지상계는 죄책과 속죄의 땅으로 구분되고, 주인공은 이 두세계의 순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고전 소설에서 지상계는 유배지적적 성격을 지녔으면서도 오히려 축복된 삶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작품에서는 한갓 꿈으로 처리되지만 분량에 있어서는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유교적 입신양명, 부귀영달의 의식과 불교적인 윤회 사상과 인과 응보 사상, 도교의 무위자연 사상의 영향과 갈등의 반영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성경은 지상계를 유배지로 보는 것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구조에서 그의 완전성을 드러내고 기뻐하셨으며, 그가 만든 피조물의 세계에 새겨진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고 명료하며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둔하고 무지한 사람 일지라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했다.

예수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신 사건에서도 현재 삶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인류를 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 가운데 혼자자가 아니라 우리를 장악하고 주인 노릇하던 죄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인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되어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 되셨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창조와 성육신의 교리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의미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원죄 의식의 결여로 인한 문제

불교적 숙명론에 의한 지상계의 이중적 성격은 결국 인간 죄에 대한 심각한 결여 내지는 원죄 의식의 상실에서 나온 것이다.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은 낙원으로 설정된 천상계로 돌아가기 위해

지상 세계에 경험했던 사건에 대해 속죄하려는 의식이 없다. 양소유의 낙천적인 인생 향락의 사상이 조금도 속죄 의식 없이 묘사되고 있다. 일부다처주의의 공교한 합리화로 팔선녀의 여권을 어김없이 짓밟고, 가족같은 대우를 하면서도 그들은 모두 만족하게 여긴다. 봉건 사회에서 여권이란 본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여자는 숙명적인 수치를 참아 넘으로써 '전생의 악'을 속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주인에게 주어진 놀이감이라고 말한다.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을 사회적 이상으로 삼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행위의 명백한 결과를 성경에서는 보여 준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 (...)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채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 아침에 되매 다윗이 (...)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치매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1-27)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강제로 소유하고 잉태하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충직한 부하이며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한다. 그리고 우리야의 죽음을 알린 전령에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고 하며 살인에 다름없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파렴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야는 왕의 부름을 받은 후 다시 전장에 나갈 동안에 집으로 돌아가 잠시 안락을 취하는 것조차 거절하며 궁정에 머물렀던 충직한 군인이었기에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배신감은 더 한 것이다. 이기적 성취 욕구를 가진 자가 권력까지 손에 쥐고 있을 때 생길 위험성은 심각하다. 억압받는 그룹의 구성원들이 성취도구로 전락되는 부도덕한 사건을 낳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악하다 하셨고, 우리야가 당한 고통보다 몇 배나 더한 징계를 다윗에게 내리셨다. (사무엘하 12:9-14)

이것은 현대적 시각에서 또 다른 통찰력을 제공한다.

원죄 의식이 결여된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을 사회적 이상으로 삼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외면하고 쉽게 벌어들인 물질이 알콜이나 마약을 사용한 파괴와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고,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개최중에 '파이프 폭탄' 테러로 주목 받았던 '미국 민병대'처럼 'K.K.K단'이나 '아리안 결사대'와 같은 맥락에서 피부색이 다른 인종을 '정의'라는 명목으로 무차별 살육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를 지키는 것임을 암시하는 텍스트를 수용할 때, 그 집단은 심각하게 부패할 수 있다. 이것은 문학에 성적인, 폭력적인 요소를 담는 것 보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차라리 불경스러움을 담고 있어도 신성함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텍스트나 양소유의 애정 행각을 상당히 노출시켰더라도 그것을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고통을 보여주는 텍스트였다면 그 만큼더 감동적일 것이며, 따라서 불경스러움도 덜할 것이다.

내세적 구원관의 문제

고전소설의 구원관은 주인공이 승천하여 돌아가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소설의 말미에 간략하게 제시되었을 뿐이다. 즉 고전 소설의 구원관은 내세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욕망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이땅에서 모든 고난을 보상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의미있는 것이다. 승천한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어떠한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 즉 천상계는 지상계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설정된 공간에 불과 하다. 물론 성경은 예수가 통치할 그때의 평화로운 천국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마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6-9)

꿈을 통한 문제 현실 문제의 극복의 방법

삶의 어려움과 고통스런 인간탐구, 현실 극복, 고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의 돌파구를 가공의 꿈의 세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학적 상상력은 현실에 뿌리를 둔 것이어야 하며 사물들은 믿음과 행위가 미치는 범위 밖으로 제거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초적, 환몽적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련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의 시도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와 세계의 질서에 속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위대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곳에서 가치롭게 제시된 도덕적 문제와 감동의 요소들이 우리를 더욱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문화적 변화를 가져와서 인간적인 사회가 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도덕적 문제에 새로운 감상을 갖을 지라도 필연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문학에서 제기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문학은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의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구운몽'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상과 상반된 장르를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가치와 적절한 독서 태도를 말해 보자.
2.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을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의 다양한 사례를 말해 보자.
3. 작가(성진)가 본 현실의 삶에 대한 인식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현실의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말해 보자.